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인제,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한 신 의원(40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며,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인식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명백히 인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외부 세력은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최근 광화문역, 잠실역,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를 포함해 전쟁기념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이유 없이 철거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송출되고 있었던 실시간 독도 영상 재생도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독도 관련 콘텐츠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임.
-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와 관련된 기관들과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였지만, 해당 독도 관련 콘텐츠들이 철거되기 전후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등 일본의 눈치를 본 굴종 외교의 일부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등 논란의 연장선에서 보았을 때 이번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 또한 굴욕·굴종 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고,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일련의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가 서울시 내에서도 다수 이루어지며 서울시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토주권 수호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 독도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의 추진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자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떠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수호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독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이양될 수 없으며,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관심도 제고가 시급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도 지키기 캠페인을 시행하여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 계층을 아우르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며, 서울시 내 모든 학교와 공

공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독도 관련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도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독도의 날(10월 25일) 관련 행사 및 캠페인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4.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독도 수호 및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노력을 선도적으로 이끌며, 서울특별시가 중심이 되어 독도 관련 정책 및 교육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도 관련 연구와 국제 홍보를 지원하며,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요한 역사적·법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